

뮤지엄 가이드 II

The Studio of Artist

예술가의 방

김환기의 뉴욕 스튜디오

한기미술관은 김환기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며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세대-계층-장애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인식개선의 계기, 관람객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형 배리어프리 전시 《뮤지엄 가이드》를 진행합니다. ‘소리와 향’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과 매체, 언어로 안내할 이번 전시는 김환기 예술세계에 입장한 모든 이들과 동행하여 소외되거나 길을 잃은 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술가의 방 : 김환기의 뉴욕 스튜디오》에서는 예술가, 김환기가 자신의 뉴욕 스튜디오로 우리를 초대한다. ‘예술가의 방’은 예술가의 일거일동一舉一動을 축적해놓은 공간이다. 정진하는 수도자의 마음으로 작품 안에서 다양한 조형 실험에 매진한 예술가의 창작과정에서부터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나, 친구들과 예술론으로 밤을 지새우며 예술가의 고뇌와 열정의 시간까지 아로새긴 ‘예술가의 방’에서 ‘예술가, 김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예술가의 방》전은 예술가가 ‘창작’하는 과정을 ‘소리’로 재해석한 ‘회화繪畫’와 밤새워 ‘예술론’을 논하는 분위기의 ‘향취’를 재해석한 ‘회화會話’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세계로 나아가기까지의 여정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을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 청각, 후각, 촉각 등의 통합적 감각으로 새로운 감상의 장을 펼쳐낸 《예술가의 방》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 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전시 관람의 벽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전시를 제안한다.

전면점화全面點畫의 탄생

셔먼 스퀘어 스튜디오(Sherman Square Studio,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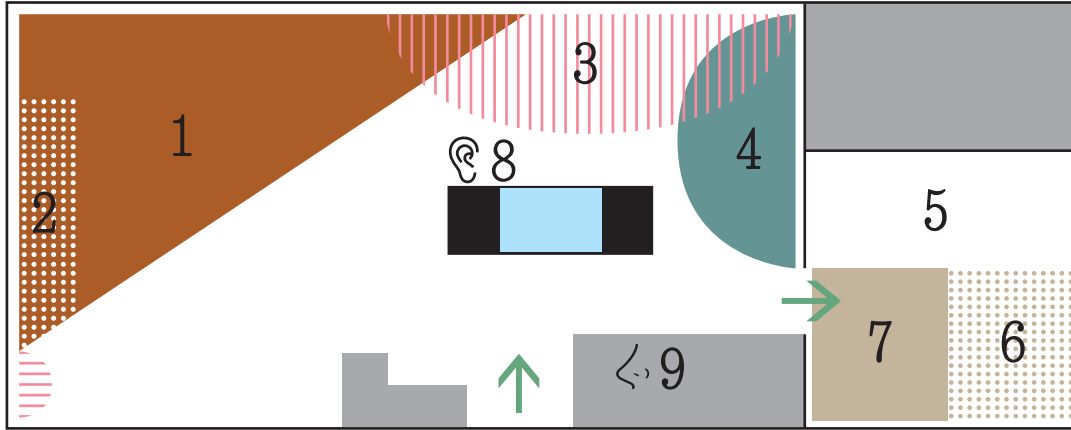
김환기가 뉴욕에서 머물렀던 ‘셔먼 스퀘어 스튜디오’는 160W, 73가에 있으며 김환기의 ‘뉴욕 스튜디오’로 불린다. 1964년 10월, 록펠러 3세가 운영하는 아시아 소사이어티(The Asia Society)의 재정적 후원으로 ‘셔먼 스퀘어 스튜디오’에 입주한 김환기는 1974년 7월, 작고할 때까지 십여 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한다. ‘뉴욕 스튜디오’에서 김환기는 평생의 화제畫題였던 한국의 자연과 전통기물에 내재한 정서를 주제로 점차 구상성을 털어내고 자연의 본질에 파고들어 ‘점, 선, 면’으로 응축된 추상성을 찾아간다. 그의 ‘시詩정신’이 녹아 든 ‘점點’으로 완성된 서정적 추상 세계인 ‘전면점화全面點畫’ 즉, ‘송고의 미학’이 바로 이곳 ‘뉴욕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술가의 방》전을 통해 김환기가 ‘뉴욕 스튜디오’에서 이뤄냈던 예술의 문맥을 이해해보고,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스튜디오의 재현, 스튜디오의 향, 스튜디오의 소리’ 등 공감각적인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다.

본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StudioofArtist

예술가의 방 : 김환기의 뉴욕 스튜디오



7. 방명록 - '오늘의 기록'

문학적 시정詩情을 남겨주세요!

8. 환기미술관 '㉠ 청각 가이드'

<예술가의 시간> by 음악감독 조용욱

김환기의 '뉴욕 스튜디오'에서의 일상을 음악으로 담아내 귀로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펼쳐냅니다.

9. 환기미술관 'ㄹ 후각 가이드'

<김환기 '뉴욕 스튜디오' 향취> 재현

작가에 대한 서사성을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후각적 예술 경험을 제공합니다.

* 협력 - 더 퍼퓸 코리아

4. 김환기의 뉴욕시대 '편지그림'

뉴욕정착 초기, 서울에 떨어져 있던 부인 김향안에게 보낸 편지들로 김환기의 문학적 시정詩情과 함께 예술가적 기질이 담겨 있습니다.

5. 포토존 - '김환기 전시 포스터'

당신의 오늘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세요!

6. 김환기의 '창작도구'

김환기는 대패, 손망치, 못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크기와 재질의 캔버스를 만들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1. 김환기의 '뉴욕 스튜디오' 재현

1963년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뉴욕으로 향한 김환기는 여기 이곳 '뉴욕 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합니다. '뉴욕 스튜디오'는 김환기, 김향안 부부의 침실과 김환기의 화실이 함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작은 부엌과 침실, 이 침실을 지나 가장 넓은 공간이 바로 김환기의 화실이었습니다. 주거와 작업 공간이 함께 있었지만 김환기는 늘 화실로 출근 하듯이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아침부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우며 '창작'에 매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튜디오에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안부를 묻고, 밤을 새워가며 '예술론'을 펼치기도 하면서 예술 열정을 피워냈습니다.

2. 김환기의 '뉴욕일기' 영상

김환기는 61세의 나이로 뜻하지 않게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겨놓은 뉴욕일기는 우리에게 친절하고 흥미로운 가이드가 됩니다. 김환기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이루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 예술적 가치관으로 우릴 안내합니다.

3.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

김환기는 뉴욕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양한 조형 실험과 재료 연구를 거쳐 조형의 기본원리인 '점, 선, 면, 색'으로 이루어진 '점화'의 세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김환기가 찍은 '점'들은 일생을 통해 맺어졌던 인연들과 더불어 해, 달, 별 등과 같은 자연 그리고 예술가로서 살아온 삶의 시간을 새긴 것입니다. 고국에 대한 그림움과 예술적 명상들은 정화된 미적 결정체가 되어 새로운 질서와 균형속에서 빛이 납니다.